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와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노 신 애(서울대학교 석사) · 진 미 정(서울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자녀 양육과 돌봄의 부담의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가족친화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인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의 측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알아본 후,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이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미취학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 즉 남성 318명과 여성 310명으로 총 62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지역사회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한, 즉 ‘행정구’라고 응답한 응답자 남성 111명, 여성 149명으로 총 260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1.0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주요 변수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범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행정구’(41.40%)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 인식에는 자녀양육 관련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가 더 높을수록 즉,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더 많이 알수록, 그리고 사회자본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은 높게, 양육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나, 사람들이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하는 지역사회는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함으로써 돌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 모두 가족친화성 인식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볼 수 있었지만,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의 영향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양육 효능감의 경우에는 사회자본의 영향이 가족친화성 인식이나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보다 더 크게 나타나 사회자본은 지역사회를 더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하는데 뿐 아니라 양육 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인식은 양육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지만,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이 양육 스트레스와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 스트레스 경감에 효과를 줄 수 있는 다른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범위에 대해 일관되게 규정함으로써 연구결과 해석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고,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직접 알아보아 선행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명하였고, 그 결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함으로써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